

스타트업,

지역의 미래일까?

: 지역과 스타트업이 서로에게 묻다



**STARTUP  
ALLIANCE**



# 스타트업, 지역의 미래일까?

: 지역과 스타트업이 서로에게 묻다



### 독서

EU, 영국 등에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수렴 및 토론의 과정을 담은 문서. 이 과정에서 도출된 질문과 논의를 통해 전 사회적인 토론을 시작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일례로 독일에서는 미래 노동 정책에 대한 독서 Work 4.0를 발간하고, 전 독일사회에 토론과 의견 개진을 이끌어낸 바 있음

우리는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의 지역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왜’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어떻게’ 성장할지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해 왔다. 이러한 반성에서 우리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해답을 먼저 제시하기보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독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독서는 **지역의 미래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접점**에서 우리가 토론을 지속해야 할 다양한 관점의 질문과 질문을 도출한 과정을 정리했다. 우리 사회와 지역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폭넓고 근본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독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목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설명한다. 이어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지역과 스타트업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정리한다(2장). 다음으로 ‘스타트업, 지역의 미래일까?’라는 대질문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변화의 주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 ‘지역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 순으로 구체적인 핵심 질문을 제안한다(3장).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독서를 준비한 과정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리한다.

# Contents

5	1. 배경
8	2. 지역과 스타트업의 재정의
	2-1. 다시 바라본 지역의 의미와 범위
	2-2. 다시 바라본 스타트업의 의미와 범위
12	3. 스타트업, 지역의 미래일까?
	3-1. 우리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
	3-2.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변화의 주체
	3-3.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
	3-4. 지역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
22	4. 논의 확장을 위한 앞으로의 여정



# 배경



대한민국은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밀집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지역적 인구 편중 현상을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격차는 우리나라가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지역 개발 정책으로 압축성장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자리 잡으면서(인재와 자본 등) 혁신 기반이 취약한 지역과 더욱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수도권에 유입되는 인구의 79%가 청년층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심각한 생산 인력 감소를 겪고 있다. 지역 간 양극화는 수도권 과밀과 경쟁의 심화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감소와 인구 절벽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청년 이주 장려 등 정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어 지역 경제 기반의 붕괴와 지역 소멸이라는 어두운 미래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를 불가역적 현상으로 보고, 위험 상황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리는 지역 사회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혁신'이 필요하고, 지역에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한다. 미국 시애틀의 사례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시애틀의 인구수는 미국 내 10위권 밖이지만, 경제성장률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힘입어 미국 주요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시애틀은 본래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지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을 비롯해 크고 작은 혁신기업이 탄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해 혁신 경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다양하고 탄탄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해가고 있는 사례로 꼽힌다. 불과 10여 년 전 제주 지역의 산업은 농수산업과 관광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에는 항공우주,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로컬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있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단계의 제주와 달리, 지역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상생 가능성을 이제 막 실험하기 시작한 지역도 있다. 2020년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한 경북 영주시가 그 예이다. 영주시에서는 2021년부터 영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스타트업과 지역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STAXX 프로젝트가 민관이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



제주 항공우주 스타트업 (출처: 컨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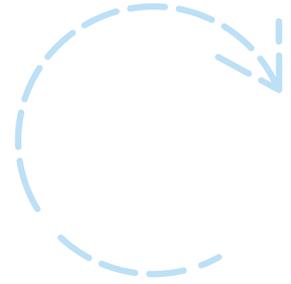


영주 STAXX (출처: 임팩트스퀘어)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혁신을 주도한 기업은 계속해서 등장하고 진화해 왔다. 1990년대까지는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2000년 이후에는 IT 기술 기반의 벤처기업, 2010년 이후에는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에 혁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주도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스타트업 생태계는 국가 경제 전반에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지역 단위 경제에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애틀의 사례와 같이, 한국에서도 지역에 형성된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 지역과 스타트업의 재정의



## 2-1 다시 바라본 지역의 의미와 범위

---

대한민국의 지역 발전 정책은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0년대 정부 정책에서 지역은 국가 경제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단이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 주요 정책의제에 오르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 대도시가 포함된 광역권 조성을 추진했다.

200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식 기반 경제가 대두되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역이 고유의 잠재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이 추진되었고, 각 광역시도에 TP(테크노파크), 벤처기업 단지 등을 설립해 지역 특화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2010년 이후에는 혁신 스타트업이 사회·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 역할을 하게 되면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되었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더불어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기업 등과 같이 '지역의 다양성'에 기반한 창조적 창업 활동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 한국 지역 정책의 변천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97년	2000년대	2010년대
특정지역을 국가 경제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성장거점 개발 전략	지역 균형발전 정책목표 수립 시작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국가 주요 정책의제로 등장	IMF 이후 지역별 환경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발전전략 추진  광역시도 TP, 벤처기업단지 설립해 지역 특화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광역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기술 기반 스타트업 외에도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스타트업 등과 같이 '지역의 다양성'에 기반한 창조적 창업 활동 확산 시작

그동안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이동하면서, 지역은 행정·경제·문화권 등으로 구분되어 더욱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어떤 지역 구분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

지역은 행정권, 경제권, 문화권 등 다층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음은 그 사례를 보여준다.

### 행정권 으로서의 지역

- 01 기초 행정구역 :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02 광역 행정구역 : 17개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 경제권 으로서의 지역

- 01 광역 경제권 :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자치체를 연결하는 클러스터(서울·경기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전북권, 강원권, 제주권)

### 문화권 으로서의 지역

- 01 문화·생활경제권 : 서울 흥대·성수·을지로, 인천 개항로, 수원 행궁동, 부산 영도, 제주 원도심 등 로컬 문화에 기반한 생활경제권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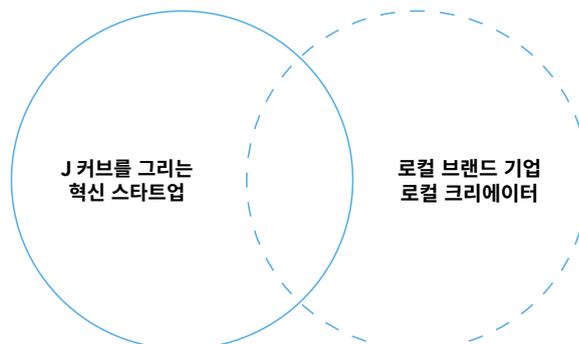
# 다시 바라본 스타트업의 의미와 범위

스타트업은 199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넷 산업의 성장과 함께 창업 붐이 일어나던 시기에 탄생한 용어이다. 스타트업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창업 기업', '반복적이며 확장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조직' 등으로 정의된다.

국내에서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창업의 의미가 변화해 왔다. 1990년대 말 IT 산업 발전과 함께 등장한 벤처기업은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IT 분야 신생 기업을 의미했다. 이후 벤처기업의 성장과 함께 IT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실리콘밸리식 벤처캐피탈이 국내에 자리 잡았고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모델이 도입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시장 변화에 힘입어 브랜드 기반의 사업도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의 범위에 라이프스타일, 로컬 크리에이터 등도 포함되고 있다. 즉, 스타트업의 정의는 시대적·사회적 변화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흐름과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생각하는 스타트업의 정의는 무엇일까? 반복적이며 확장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조직, 즉 J커브 성장곡선을 그리는 혁신 스타트업으로 한정해야 할까? 기술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확장가능한 로컬 브랜드·크리에이터 기업까지 포함해야 할까? 앞으로 우리의 논의에서 스타트업을 어떤 정의로 바라봐야 할까?

### 스타트업의 범위



# 3

## 스타트업, 지역의 미래일까?

3-1

우리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

3-2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변화의 주체

3-3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

3-4

지역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

# 스타트업, 지역의 미래일까?



스타트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실현하는 경제주체이다. 지역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는 시장의 혁신과 발전, 사회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스타트업 생태계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 영향력이 작은 지역도 있다. 또한 현재 지역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다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주력산업 및 전통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토양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성장한 중소·중견기업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러나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며, 큰 꿈을 가지고 확장가능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지역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과 성장을 꾀하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리더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파트너십은 여러 지역에 확산되고 지속될 수 있을까?

### 3-1

## 우리가 그리는 지역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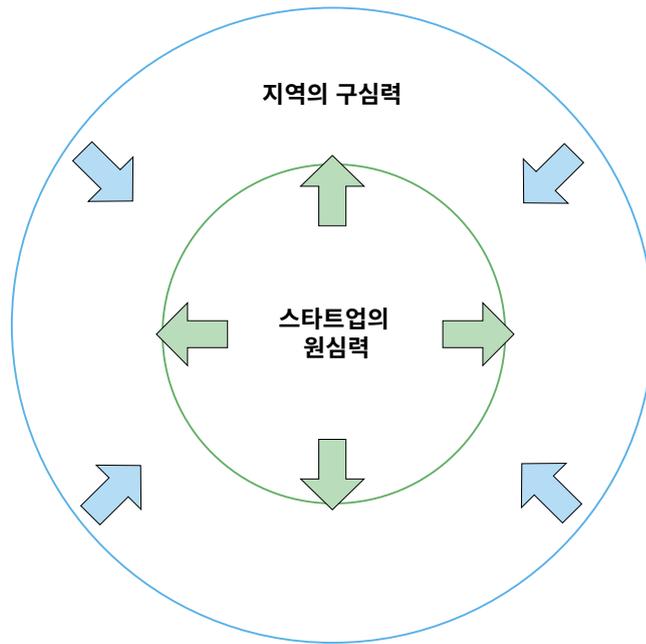
---

스타트업이 모든 지역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정답은 아니다. 각 지역이 가진 조건과 고유한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시민, 기업, 행정, 정치 분야의 리더들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큰 그림 아래 각기 다른 미래를 추구할 수 있다. 이들은 공론의 장에서 '지역의 미래'를 제안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쟁할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입장에서 지역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의 역할과 역량만으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성장할 수는 없다. 법·제도와 같은 입법, 행정, 정치의 역할은 물론 주요 기관 및 기업의 협력, 그리고 시민적 지지까지 갖춰져야 한다. 이들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가 가져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한다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모든 지역은 가능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재화와 서비스가 해당 지역 내에 순환하게 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진다. 반면, 가파른 성장을 꿈꾸는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크고 넓은 시장과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을 내부로 모으고자 하는 지역의 구심력과 넓은 시장을 향하는 스타트업의 원심력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등하는 에너지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에너지가 지역 내에서 역동적으로 만나고 섞이면서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과 스타트업 모두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 지역의 구심력과 스타트업의 원심력



이러한 논의 끝에 우리 사회가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핵심 질문을 제안하고자 한다.

- 01 글로벌이나 수도권을 따르지 않는 우리 지역만의 미래상을 가지고 있는가?
- 02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청년, 외국인, 중년 부부 등)은 어떤 지역에서 살고 싶을까?
- 03 우리 지역의 미래에서 경제 성장이 중요한 목표라면, 어떤 기업군에 중점을 두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1) 대기업 (2) 중견기업 (3) 혁신 창업기업 (4) 로컬 크리에이터 (5) 소상공인 (6) 농업 기반 6차 산업 등
- 04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혁신'은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인가?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생력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05 우리 지역의 미래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필요한가? 우리 지역이 원하는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스타트업 생태계가 있다면 혹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없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미래가 전망되는가?

## 3-2

#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변화의 주체

---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 어느새 30년이 넘었다.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지방자치제가 어느정도 역할을 하였지만, 지방자치 도입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해 독자적인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이나 지역 내 혁신 주체의 육성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앞으로 지역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주체는 누가 있고, 각 주체들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져야 할까?

현재 스타트업이 지역 경제의 주축은 아니지만, 스타트업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된다면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에 새로운 변화와 동력이 형성될 수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는 스타트업을 둘러싼 혁신 주체들과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유기적 환경으로 정의되며, 자본, 인재, 인프라, 문화, 법·제도·정책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뤄져 왔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끄는 주요 주체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 일반 기업, 대학, 정부·국회, 언론·미디어 등이다. 이 생태계 속에서 스타트업은 주요 주체들과 투자, 지원, 협업 등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또한 현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주축인 지역 기반의 레저시 기업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나 고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비파괴적 혁신의 형태로 발전되어 온 중견기업도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주체이다.

### 레저시 기업

지역 주력산업 및 전통산업 기반으로  
오랜기간 견고하게 성장해 지역에  
자리잡은 중견기업

---

우리는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주체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다음의 핵심 질문들을 도출하였다.

01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는 혁신적 비즈니스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하고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02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 스타트업이 지역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스타트업은 우리 지역에 무엇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 지역은 스타트업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03

우리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주체들은 누가 있는가?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변화의 주체들 각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부, 국회, 대학, 언론, 금융, 기업, 지역 레거시 기업 등)

04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또한 이들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05

혁신의 다른 말은 '새로움'이다.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기존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혁신과 융화될 수 있을까?

### 3-3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나타내는 지표는 일정 금액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의 수, 펀드 규모, M&A 및 IPO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우, 양적인 지표상으로는 수도권 대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어, 지역 생태계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정교하게 디자인된 기준을 통해 지역 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때로는 상황에 맞게 기준을 재설정하며 목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지역과 스타트업이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갖춰야 할 요건은 적지 않다. 지역마다 역량과 목표도 다를 수 있다. 지역이 가진 조건에 따라 지역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추구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모습이 다른 만큼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기브퍼스트**  
스타트업 생태계 내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문화로, 서로 먼저 내어주고 베푸는 행위

- 01 우리 지역만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까?
- 02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의 건강함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 측면의 지표와 ‘스타트업’ 측면의 지표는 각각 어떤 것이 있는가?
- 03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커뮤니티 활성화, 기브퍼스트 문화 등 정성적인 요소는 측정가능한가?
- 04 유니콘과 같은 스타 기업의 탄생 외에, 우리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과 성장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 3-4

## 지역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

---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스타트업, 혁신기업 생태계는 한 지역으로 집중해서 모여드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 정책은 지역별 균형 있는 분배와 발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전역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는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3곳에 조성되어 있다. 한편 한국에는 16개 바이오 클러스터가 존재한다. 왜 한국에서는 혁신기업 생태계가 본연의 속성을 따르지 않고 곳곳에 흩어져 있을까? 정부는 왜 선택과 집중이 아닌 분배를 우선으로 판단할까?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는 서울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스타트업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조성 경로와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은 스타트업 생태계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회·경제적 인프라 측면의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지역마다 기술, 문화, 지리적 측면 등에서 고유의 강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속도와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역의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중소기업의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존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협업하며 공생하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산업, 교육 등 지역 기반이 모두 쇠퇴한 곳에서는 그야말로 맨땅에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생성 및 작동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자본, 인재, 기술, 시장, 커뮤니티는 충분해야 한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지역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 창업가 측면

- 01 우리 지역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도전 정신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 02 창업가가 탄생하고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우리 지역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정책·행정·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 03 우리 지역의 창업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 지역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무엇인가?
- 04 창업가의 관점에서 우리 지역만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행정·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 인재 측면

- 01 현재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는 ‘인재’는 누구이며, 우리 지역에서 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우리 지역이 보유한 인재들과 보유하지 못한 인재들은 누구일까?
- 02 우리 지역의 인재가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03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지역에 연결되고 정착하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 04 우리 지역에 부족한 인재 확보를 위해 타지역과의 차별화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 05 지역 대학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자본 측면

- 01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 필요한 우리 지역의 투자 생태계 현황은 어떠한가?
- 02 우리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민간 자본을 어떠한 방법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로 유입시킬 수 있는가? 지역 내 금융, 투자 자본 형성이 어렵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노력은 무엇일까?
- 03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한 지역 자본이 회수되고 다시 또 다른 지역 스타트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 04 우리 지역에서는 어느 투자 단계에 자본을 집중할 것인가?

## 커뮤니티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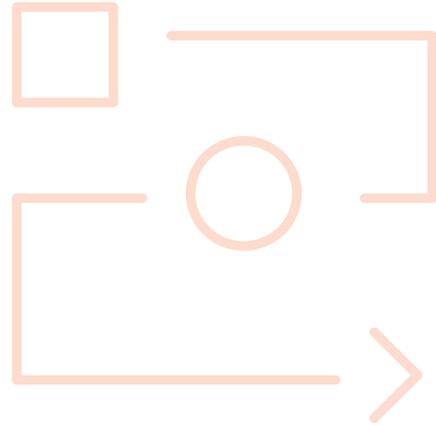
- 01 우리 지역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 커뮤니티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가, 혹은 공공이 주도하는가?
- 02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서로 기브퍼스트 하는 커뮤니티를 우리 지역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커뮤니티 간 연결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 03 자원의 한계를 넘는 큰 꿈을 꾸며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스타트업 문화를 응원하는 문화를 지역에 퍼뜨릴 방법은 무엇일까?
- 04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성공한 선배 창업가가 후배 창업가를 돕고 투자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이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

## 시장 측면

- 01 우리 지역이 주목하는 시장/산업 분야는 무엇인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02 우리 지역은 다양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행정 구역의 구분을 넘어서서 인근 지역들과 연결되어 더 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03 지역에서 창업했음에도 지역을 넘어 전국, 나아가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을 수 있는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우리 지역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 04 우리 지역은 스타트업과 레거시 산업의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까?



# 논의 확장을 위한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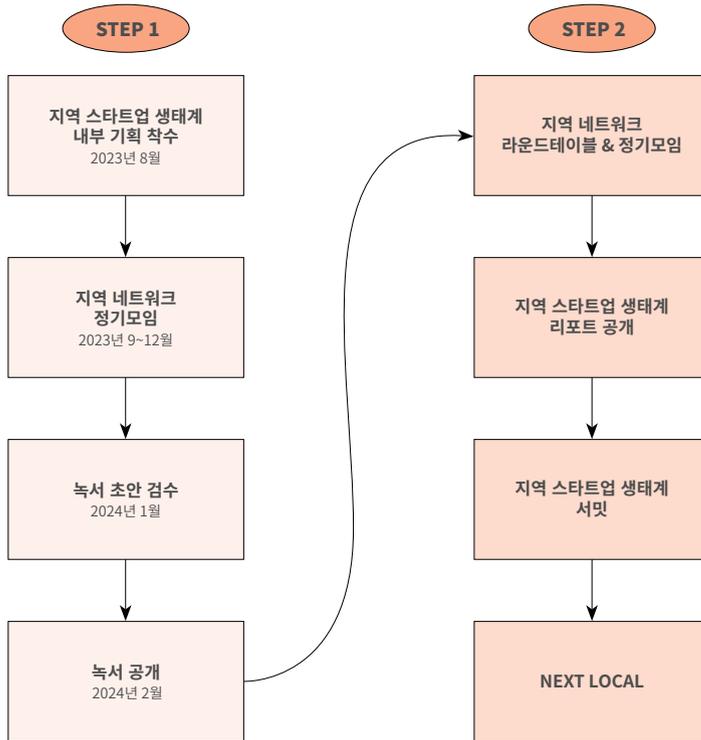


2023년 7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 약 100명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서밋을 진행했다. 서밋에서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성장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러한 논의가 발전적으로 지속될 필요성을 파악했고, 그 결과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가 모인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이하 지역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지역 네트워크는 지역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온 벤처·스타트업 투자, 도시전략, 학계, 혁신 커뮤니티 등 전문가 6명이 모여 지역 생태계의 정보를 모으고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역 네트워크에는 김판건 미래과학기술지주 대표, 전정환 크립톤 이사, 천동필 부경대학교 교수,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METAA) 본부장, 최송일 와우디랩 대표, 한종호 소풍벤처스 파트너가 합류했다. 이들은 서울, 부산, 대전, 강원, 제주 등 각 지역과 관련해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도시문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023년 9월부터 지역 네트워크 전문가들과 함께 5회에 걸친 정기모임을 가졌다(2023년 9월 12일, 10월 24일, 11월 8일, 11월 21일, 2024년 1월 25일). 우리의 전문가들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며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나눈 내용들을 정리해 이 녹서가 탄생했고, ‘스타트업이 지역의 미래일까?’라는 대질문에서 시작된 녹서는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논의해야 할 주요 질문들을 제시했다. 앞으로 이 내용은 지역 라운드테이블 등 향후 지속될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네트워크 추진계획



우리는 이제 지역별 라운드테이블과 인터뷰를 통해 지역 생태계 현장의 생각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각 지역에서 축적된 논의를 토대로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과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 고유의 특징을 정리해, 지역 생태계의 다양성을 알리고 각자 지역에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연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서밋을 개최해 전국의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한자리에 모으고 지역 생태계 발전을 위한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STARTUP  
ALLI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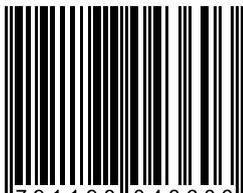
### **스타트업, 지역의 미래일까?**

<b>발행인</b>	스타트업얼라이언스
<b>기획/제작</b>	스타트업얼라이언스
<b>발행처</b>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5, 11층(논현동, KTS 빌딩)
<b>발행일</b>	2024.02.26
<b>ISBN</b>	<b>979-11-980436-0-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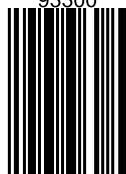
\*이 책의 저작권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매품 / 무료



93300



9 791198 043603  
ISBN 979-11-980436-0-3

startupall.kr